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청래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광주시-민주당, '원팀 협력'으로 현안해결 속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시정 주요 현안 해결과 2026년 국비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황명선 최고위원, 한정에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정위원장, 박승원 차장은 지방정부위원장, 권한업 대변인, 김영환 정무실장 등 핵심 지도부, 양부남·정진숙·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근택·민형배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전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광주시는 2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중점으로 미래모빌리티, 에너지(RE100) 등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광주 신산업선 국가계획 반영, 3대 국립문화시설 유치, 양동북개항가 생태하천 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강기정 시장이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자, 정청래 대표가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위해 광주시정비와 시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저도 국가AI컴퓨

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지역 현안·내년 국비 지원 논의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518헌법전문수록 등 현안 해결 한목소리
10대 핵심건의 추가반영 요청... 광주 3대 혁신정책 전국 안착 강조

팅센터 광주 유치를 광주시민과 함께 응원하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광주시는 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AI영재고 설립 ▲빛의 혁명 발원지 옛 5·18묘역 민주공원 조성 ▲케이(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등 10대 핵심 건의사업의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 확산이 확정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산단근로자 조식 지원 ▲초등학교 10시 출근제 등 3대 혁신 정책이 국가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지금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가 가장 큰 현안이다. AI로 먹고살고, 모두의 AI를 실현하려는 광주의 새로운 도전에 민주당이 함께해주시고 하니 큰 힘을 얻는다"며 "광주는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정책이면 정책, AI

면 AI로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이 오늘의 빛의 혁명으로 활짝 피어났다"며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는데, 대한민국은 광주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이 질문에 국가가,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광주가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고, 광주 민주정신이 잘 살아 숨쉬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며 "AI중심도시 도약, 문화시설 기반 확충,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정책현안 사업은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광주 선정 지원 ▲영농형 태양광 활용 기업 1호 알이(RE)100 달성 지원 ▲광주

~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타면제 및 용역비 지원 ▲광주 신산업선 국가계획 반영 ▲3대 국립 문화시설 유치 ▲양동북개항가 생태하천 복원 ▲지역과 함께 여는 대한민국 돌봄시대 선언 광주 개최 ▲5·18정신 등 헌법전문 수록 개헌 등 8건이다.

또 국비지원 사업으로는 ▲광주발(發) 혁신정책의 정부 예산안 확대 반영 ▲GIST 부설 AI영재고 광주 설립 ▲빛의 혁명 발원지 옛 5·18묘역 민주공원 조성 ▲옛 광주직접사범원 보존 및 활용사업 ▲미래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안전 시험 지원 기반 구축 ▲수직 이차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군부대(무등산 이동식 방공포대) 이전 ▲영산강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산단근로자 전원의 아침밥 지원 등 11건을 요청했다.

/기동취재부

1차 소비쿠폰 40% 식당서 사용... "상권 활성화 효과" "소비 심리 개선에 경기전망도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약 40%는 식당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까지 전체 대상자의 99%인 5008만여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지급액은 9조693억원에 이른다.

지난 14일 자정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금액(6조177억원)의 88.1%(5조2991억원)가 사용됐다.

업종별로 음식점(40.3%), 마트·식료품(15.9%), 편의점(9.5%), 병원·약국(9.1%), 학원(4.1%), 의류·잡화(3.6%) 순으로 사용액이 높았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소상공인들의 경기전망도 밝아졌다고 평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 2021년 이후 최저치인 110.8를 기록했고, 이어 8월에는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11.4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의 8월 체감 기업경기실사지수(BSI·기업인들의 주

관적인 경기 전망)와 9월 전망 BSI도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 BSI가 호전된 이유로 소상공인(77.0%)과 전통시장(89.3%) 모두 '정부 지원 증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상품이 얼마나 소비됐는지를 나타내는 7월 소매판매액 지수도 지난 6월 대비 2.5% 늘어,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소비쿠폰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5.8%는 소비쿠폰 지급 이후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그밖에 소비쿠폰으로 구입한 커피, 간식, 생필품 등을 소방서나 보육원 등에 전달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가치소비에 한층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광주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막는다

임금체불 신고센터 집중 운영, 명절 전 임금 조기지급 독려 등

건설 근로자들이 따뜻하게 추석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0월 2일까지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추석명절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과 연계한 것으로,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을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임금체불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확인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건설업 임금체불의 원인 중 하나인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하도급 근절에도 나선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신고센터(062-613-4621)를 집중 운영해 신고 접수 시 발주부서와 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다. 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대금의 신속 지급을 독려해 근로자들에게 추석 전 임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위가한 건설행정과장은 "침체된 건설경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이중고에 직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